

‘특전사동지회 참배’ 놓고 5·18 단체간 또 충돌

3일 민주묘지 앞 저지선서 “열어달라” vs “돌아가라” 대치 임성록 고문·임근단 여사 어제 재방문...“화해·용서” 소원

특전사동지회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두고 일부 5·18 공법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3일 오전 5·18민주묘지 부상·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특전사동지회는 오월 영령들의 추모를 위해 두 공법단체와 함께 묘지 입구 민주의문 앞까지 갔으나 결국 되돌아갔다.

이들의 참배를 거세게 반대하는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가로막혀서다.

앞서 대책위는 부상·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민주묘지에 도착하기 전 참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한 사죄 없는 특전사동지회의 참배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민주의문 앞에 ‘저지선’을 쳤다.

이를 본 부상·공로자회가 대책위에 반발하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이들 사이를 막아섰다.

같이 막힌 특전사동지회는 경찰과 대책위에 참배를 막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母)를 꿇고 절을 올렸으며, 그와 모자(母子) 관계를 맺은 고(故)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도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부상·공로자회 일부 회원들은 막힌 길을 뚫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돌아가라”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결국 특전사동지회는 민주의문 앞에서 목숨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민주묘지 방문 전 특전사동지회는 부상·공로자회와 함께 광주 서구 5·18기



지난 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반대하는 오월정신지킴이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참배하려는 특전사동지회 및 일부 5·18 단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념공원 내 ‘추모송화공간’을 참배했다. 이후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도청

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난 뒤 임성록 고문은 대책위에 “특전사동지회의 참배

를 막지 말아달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죄인지 알려달라”고 되물

었다.

하지만 대책위의 단호한 태도에 전남 참배가 무산되자, 임 고문과 임근단 여사는 4일 다시 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날 두 묘지는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한 뒤 임근단 여사의 아들 고 김경철 열사와 임 고문의 친구 최미애 열사의 묘역을 찾아 뉘를 위로했다.

무명 열사 묘역에서 임 고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읊조렸다.

임 여사도 “화해와 용서로 하늘나라에서 (오월 영령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했다.

한편 전남 대책위는 오후 1시 민주묘지 2묘역에서 열리고 (故) 유광범(공로자회 회원)씨의 안장식이 다가오자 부상·공로자회 회원들에 의해 저지선 일부를 열어줬다.

그 뒤 대책위는 “진정한 사죄 없는 특전사동지회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안재영 기자

“5·18 사적지 하루빨리 원형 보존됐으면...”

“5·18 사적지가 빠른 시간 내에 관리,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5·18기념재단이 오는 17일부터 진행하는 ‘이동형 오디오 씨어터 공연-콘크리트 보이스’를 먼저 체험하기 위해 기념재단 직원과 서포터즈 등이 모여있었다.

‘콘크리트 보이스’는 헤드셋을 쓴 채 80분 동안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의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건물들이 말해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선은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출발해 충장로우체국, 금남로 일대를 지나 옛 광주적십자병원까지다. 오후 6시께 도착한 마지막 코스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화창한 바깥 날씨와는 다르게 어두컴컴하고 스산했다. 건물 입구에 ‘본 건물은 5·18 사적지로 선정돼 원형복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건물 바깥 난간은 녹슬어 있었고 콘크리트도 곳곳이 깨져 누가 봐도 한눈에 ‘폐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건물 내부도 관리가 안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천장 곳곳은 뜯어져 있

●5·18기념재단 ‘콘크리트 보이스’ 미리 체험
헤드셋 쓰고 80분간 광주 금남·충장로 일대 방문·설명 청취
옛 적십자병원 폐건물 실감...오는 17-18일, 24-25일 8차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옛 광주적십자병원에서 5·18 기념재단 직원과 서포터즈가 ‘이동형 오디오 씨어터 공연-콘크리트 보이스’를 체험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었고, 각종 쓰레기들은 응급실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병상에는 각종 옷가지와 커튼 등 천들이 가득했고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기기도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상태였다.

이를 보며 참가자들은 보존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소현(24) 서포터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이야

기를 듣고 체험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면서 “마지막 코스인 옛 적십자병원이 오랜기간 방치돼 있어 하루빨리 사적지로서 복원돼 건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후세대가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전 체험 신청객은 모두 14명으로 현직교사 9명은 오후 3시에, 5·18재단 직원과 서포터즈 5명은 오후 5시에 각각 체험했다.

박재용 5·18기념재단 오월길문화사업단 부장은 “올해 광주시 선양과에서 옛 적십자병원을 복원·관리하기 위해 TF를 구성, 실질적인 용역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콘크리트 보이스의 새로운 버전도 개발해 후세대와 함께 5·18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크리트 보이스’ 예매는 지난 5월31일부터 시작됐으며 회차당 15명 내외로 제한돼 있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체험은 무료이며 오는 17-18일, 24-25일 오후 4-6시 총 8차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월길문화사업단(02-300-0552)에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기자

“잊지 않았기에 ‘모두의 오월’ 됐다”

姜시장, 참배객·전국 행사위에 5·18 감사 서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지난 2일 전국 각지에서 오월광주를 찾은 학생·개인·단체 등 5·18민주묘지 참배객과 전일빌딩245 방문객, 기념행사를 연 전국 시도 5·18행사위원회 등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강 시장은 “올해도 5·18을 맞아 광주를 찾아주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늘 미안한 마음이고, 빛진 마음이다라

고하시지만 오히려 광주는 언제나 이 땅의 민주정신을 밝히려 애써온 사람들인 이들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오월 영령들을 추모해주시는 덕분에 오늘의 ‘광주정신’이 생겼으며, 진실규명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큰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갈 수 있다”며 “두렵고, 떨리고, 외로움에 사무친 오월이 아닌 함께해주는 덕분에 ‘모두의 오월’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선경 기자

목포해경, 단속한 中 어선서 음주 ‘의혹’...감찰 진행 중

중국 어선 합동단속 과정에서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한 어선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양경찰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목포해경 대형함정 소속 경찰관 3명은 지난 3월21일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 어

선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비공개 시판인 온라인 해양경찰청 청렴고충신문고에도 관련 의혹이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감찰에 앞서 목포해경의 1차 조사에서 물로 착각해서 한 모금 마셨다는 등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